

圖書館學의 學問的 性格과 體系化에 관한 研究*

金 正 昭**

〈目 次〉

- | | |
|-----------------|----------------|
| I. 緒 論 | IV. 圖書館學의 體系試圖 |
| II. 問題와 假定 | V. 結 論 |
| III. 圖書館學의 性格究明 | |

I. 緒 論

한 特定學問의 生成에는 그 學問의 學的 體系性에 대한 논쟁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 같다. 圖書館學도 그 예외는 아니어서 오늘날까지도 이 方面의 논쟁은 활발하다. 이는 圖書館學이 다른 學問에 비해 성립이 늦은데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圖書館學의 對象과 그 對象을 추구하는 方法論의 불명료란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57년 延世大學校의 圖書館學科 설립을 기점으로 삼는다면 韓國도 이미 20여년의 學問的 체험을 쌓아온 셈이며 그간에 이루어진 圖書館學 研究와 教育은 어느 學問에 못지않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圖書館學의 學的 體系에 대한 몇분 先學들의 진지한 토론은 韓國 圖書館學界의 큰 발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學的 體系에 대한 논쟁은 圖書館의 知識과 技術의 개발에 비해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圖書館學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認識은 어떤 知識과 어떤 技術을 개발해야 하는가는 문제를 포함하여 많은 基本的인 圖書館問題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히려 더 많은 學的 體系에 대한 논쟁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 啓明大學校 甲種 教授研究費에 의한 論文임

** 계명대학교 전문대학 도서관학과

圖書館學의 體系에 대한 논쟁은 우선 圖書館 “觀”에 대한 탐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本 研究者의 信念이다. 요컨대 定立된 “觀” 위에서만이 비로소 그 體系를 세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本 研究는 확립된 圖書館 “觀”위에서 試圖된 研究이다.⁽¹⁾

本 研究는 圖書館의 行爲를 社會文化的 現象으로서 파악하고 거기에 준해 그 學의 體系성을 시도해 본다. 그러므로 本 研究는 첫째 圖書館學의 性格 究明에서 시작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이 性格究明은 곧 圖書館學 體系의 前題의 구실을 할 것이며 試圖된 體系는 經驗的 資料들에 의해 검토될 것이다. 또한 試圖된 體系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體系를 圖書館學 教育의 內容組織의 原理로서 적용해 볼 것이다.

本 研究는 韓國의 몇분 先學들이 쌓아 올린 이 방면의 연구에 대한 成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 방면 研究에 참여하려는 意圖에서 起筆된 것이다.

II. 問題와 假定

圖書館學이 學問이나? 技術이나? 學問이라면 어떤 성질의 學問이나? 通念的으로 圖書館學은 社會科學의 範疇에 分類되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社會科學의 한 分科學으로서 圖書館學은 社會科學의 方法論的 體系를 수용할 수 있는가? 요컨대 어떤 學問의 方法論的 體系를 그 學問의 哲學이라고 할 때 圖書館學의 哲學은 무엇인가?

우리는 圖書館學을 學으로 認定하기 위해 認識論的인 問題에 까지 관심을 두어야 한다. 圖書館學이란 결국 “圖書館의 運營에 관한 知識”⁽²⁾이라고 한다면 圖書館學은 應用的 便宜에 부응하는 체험적 지혜의 축적 외에는 아무

(1) 本 研究와 연결되는 研究 成果로서 「圖書館學의 體系化」에서 圖書館 “觀”의 문제를 分析한 바 있다. (金正昭, 圖書館學의 體系化에 관한 研究, 圖書館學論集4輯, 1977, pp.91—111)

(2) 이흥주, 도서관학의 문제결; 학문으로서의 도서관학, 도철월보 11권, 7호 1970, p.17.

것도 아닐 것이다. (3)

우리는 무릇 學問이 그 認識論的인 問題를 제기함이 없이 그 學問의 體系를 論할 수 없음을 안다면 기존 圖書館學的의 體系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를 느낄 것이다. 圖書館學的의 知識의 참과 거짓은 圖書館運營을 효율화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간단히 답한다면 圖書館學的의 學的 體系는 成立될 수 없을 것이다. (4) 참과 거짓의 概念은 人間의 行爲 혹은 社會的 現象을 지배하는 原理로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참과 거짓의 概念이 行爲와 現象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認識論的 근거 위에 비로소 學問의 體系를 수립할 수 있다.

Kenneth E. Boulding은 經濟學에서의 認識論的 問題를 취급하면서 經濟學은 그것에 관해 知識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經濟圈(Econosphere)”에 관한 研究라고 定義하고 나아가서 經濟圈을 특히 交換(Exchange)의 現象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社會圈 혹은 모든 人間活動 관계 및 制度圈의 分派」(5)라고 제안한 것은 圖書館學 경우에도 매우 흥미있는 제안이라고 보여진다. 이는 순전히 哲學的 문제로서 經濟學的 認識論的 문제를 다루기 보다는 社會的, 文化的 問題로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人間의 經濟的 行爲의 實體性을 問題삼으므로써 經濟學에 대한 知識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社會科學이 科學으로서의 자기위치를 고수하려는 공통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6)

圖書館的 行爲의 實體는 무엇인가? 圖書館學的의 對象이 圖書館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마찬가지로 圖書館運營의 知識이 圖書館學 體系의 對象이 아

(3) 물론 이런 생각은 현실적으로 圖書館은 社會의 한 機關이라고 고집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다시말해 經濟學은 財貨의 運營에 관한 知識이라고 말할 수 없고 教育學은 가르치는 課程에 관한 知識이라고 定義할 수 없는 것과 같다.

(4) 혹자는 實用主義의 견지에서 참과 거짓도 결과적으로 運營의 효율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實用主義는 便宜的, 懷疑的 態度일뿐 哲學으로서의 實用主義는 아니다. 진정한 意味에서 實用主義는 原理의 支配力이 과연 實効性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다.

(5) Kenneth E. Boulding, The Economics of Economic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6(鄭駱謨 譯, 知識經濟學과 經濟學的의 知識, 國회도서관보 7권 6호, 1970, p.59)

(6) 政治學을 위해 人間의 政治的 行爲가 무엇인가를 묻고 教育學을 위해 人間의 教育的 行爲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과 같다.

일것도 확실하다. 적어도 圖書館科學이 되기 위해서 人間の 圖書館의 行爲의 究明은 있어야 한다. 教育的, 政治的, 經濟的 行爲들이 社會에 存在하고 또 社會文化를 繼承시키는 힘으로서 存在하기 위해 이 行爲들이 단순히 우연적, 발생적으로 있는 것을 거부하고 필연적, 보편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政治學, 教育學, 經濟學을 탐구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Pierce Butler의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의 序文에서 L. R. Willson은 「Butler박사는 그가 이해한바 科學의 本質的 性格을 論述하고는 하나의 중요한 社會機關으로서의 현대 圖書館에 관한 諸問題를 여하히 하면 그 自體의 정신과 방법에 부합하도록 고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例示하고 있다.」⁽⁷⁾고 지적한 것을 보면 圖書館의 行爲의 實體性은 이미 Butler에게서 사색된 것을 알 수 있다.⁽⁸⁾

圖書館의 行爲의 實體를 묻고 난 후, 우리가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할 問題는 圖書館學의 內的規律에 관한 問題이다. 즉 圖書館學이 學問이기 위해 圖書館學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징들 즉 概念들이 學問的 規律 일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이는 곧 圖書館學의 概念들이 科學的 檢證의 原理에 의해 實證 혹은 論證될 수 있고 또 있어야 한다는 意味이다. 여기서 科學的 檢證의 原理란 圖書館學의 概念들이 人間の 圖書館的 行爲를 記述, 說明할 수 있고 그것으로 豫言할 수 있으며 統制할 수도 있는 그런 概念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圖書館學은 圖書館運營과는 분명히 다르다. 圖書館運營은 갖가지 方式으로 간접되고 주장할 수 있다. 그 간접이나 주장은 자기 정당성을 가질수도 가지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圖書館學은 그것이 科學的인 한 직접 圖書館運營을 간접하거나 주장하고 나서지는 않는다. 圖書館學은 圖書館的 行爲를 客觀化하여 그 行爲를 記述, 說明, 豫言, 統制할 뿐이다. 圖書館學의 歷史도 다른 社會科學의 分科學과 같이 처음부터 圖書館的 行爲를 記述, 說明, 豫

(7) Butler, Pierce.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1933. (劉永孜譯, 圖書館學概論, 서울, 연세대학교, 1961, p. ix)

(8) Butler는 圖書館學의 學의 근거 제시를 위해 科學의 對社會의 機能을 論하고 圖書館의 對社會의 機能 및 任務가 社會的, 心理的, 歷史的으로 어떤 중요성을 가지며 그 過程上的 論理를 考察하고 있다.

言, 統制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哲學이고 思想이었다. 즉 圖書館學은 인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圖書館은 이렇게 해야 한도와 같은 意識에서 점차 科學으로 발전되는 歷史를 갖고 있다.⁽⁹⁾

本稿는 이와 같은 두가지 문제 즉 圖書館의 認識論의 問題, 즉 實體의인 圖書館의 行爲問題와 圖書館學의 科學性問題를 究明하므로서 圖書館學의 體系를 시도한다.

그리고 本稿는 일단 이와 같은 問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假定하므로서 本稿에서 論議되는 圖書館學 體系의 論理的 承認을 얻고 있다.

첫째 圖書館의 行爲는 社會내에 存在할 수 있는 權利를 갖는다는 것을 假定한다. 이는 圖書館이 社會文化의 存屬과 繼承에 필요한 확실한 機能을 갖는다는 假定이다.

둘째 圖書館의 行爲는 “圖書館”이라는 특수한 設備가 가지는 단순하고 부수적이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社會的, 歷史的 行爲이며 文化創造의 가치를 지닌다고 假定한다. 圖書館의 行爲는 教育的, 政治的, 經濟的 行爲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마찬가지로 文化創造의 道具라는 假定이다.

셋째 圖書館學은 社會科學의 分科學이라는 假定이다. 科學으로서 圖書館學은 圖書館의 行爲를 記述, 豫言, 說明, 統制할 수 있는 概念, 法則, 理論이 있다는 假定이다.

이러한 假定을 예상하고 圖書館學의 體系를 試圖한다.

Ⅲ. 圖書館學의 性格 究明

圖書館學의 對象은 무엇인가? 圖書館의 施設, 組織, 運營이 圖書館學의 對象이라는 생각은 圖書館學의 體系를 論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받아들여 지고 있는 것을 본다. 韓國의 大學 圖書館學科의 教科課程

(9) 19C 들어오면서 圖書館 研究에 原理的 追求가 나타나며 이 原理的 追求는 결국 圖書館 技術의 專門性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며 이 專門性의 확립은 圖書館學의 體系樹立으로 발전된다.

은 아마도 圖書館의 運營에 관한 知識과 技述이 圖書館學임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는 것 같다.⁽¹⁰⁾

우선 어떤 施設物, 혹은 어떤 組織體가 學의 對象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다. 教育學의 對象이 學校이고 관청이 行政學의 對象이 아닌 것은 圖書館이 圖書館學의 對象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 들이게 한다.⁽¹¹⁾ 教育이라는 行爲는 人間의 根源的 삶의 意義로서 존재하고, 다만 學校는 그런 教育 行爲의 한 專門의 部分을 취급할 뿐이다. 教育學이 學問일 수 있는 것은 人間存在의 根源을 이루는 어떤 對象(行動)을 갖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圖書館學은 그것이 學이기 위해 人間存在의 보편적 行爲로서 圖書館의 行爲가 있음을 前題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圖書館學은 「圖書館이라는 施設物의 便宜의 利用」에 관한 技術이상을 넘어 설 수 없을 것이다.⁽¹²⁾ 그러나 여전히 圖書館學의 定義들은 “圖書館”이라는 한 기관의 運用에 관한 技術과 知識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¹³⁾

사실 圖書館學을 圖書館運營의 學이라고 한다면 圖書館 知識은 圖書館運營의 技術에 포함되어 버린다. 즉 圖書館의 運營이란 곧 圖書館運營의 “效率化”를 意味하고 效率化란 技術에 의존하는 概念이기 때문이다.⁽¹⁴⁾ 圖書館學의 모든 知識 혹은 理論이 技術的 言語로서 그 표현이 가능하다면 圖書館學은 科學이기를 멈추는 것이다.

여기서 圖書館學을 技術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 技術學은 원래 人爲性이 제재되는 세계에서 人間이 자신의 意圖대로 現狀을

(10) 學部 7個大學 圖書館學科의 敎科課程을 分析한 結果인.

(11) 이것은 이흥주의 “도서관학의 문제점”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이흥주, 도서관학의 문제점 : 학문으로서의 도서관학, *op.cit.*)

(12) 圖書館學의 「圖書館」이라는 명칭 자체의 의문을 나타내는 圖書館學界의 한 경향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13) ㉔ 圖書館學이란 印刷 또는 書寫된 記錄類의 識別, 蒐集, 組織, 利用에 관한 知識 및 機能이다. (ALA)

㉕ 圖書館學이란 圖書館에 관한 모든 知識 및 技術을 組織的으로 研究하는 學問이다. (JLA)

㉖ 圖差館學은 印刷 또는 手書된 文獻을 認識하고 蒐集, 整理, 組織, 運營하는 知識과 技術이다. (KLA)

(14) 技術의 本質은 秘結과 같으며 效率의 극대화가 技術의 概念이다. 技術은 원래 經驗의 習得에 의존한다.

改造 혹은 理想化하려는 試圖라고 보여진다. 요컨대 技術은 人間(現象)을 自然的인 것으로 보고 다시 말해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 있는 物的인 것, 그것을 조작하므로써 새로운 行爲, 즉 組織的, 體系的 行爲를 끌어내고져 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教育學, 政治學, 經濟學, 요컨대 行動科學 영역의 모든 學問을 技術學이라고 불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 學問들은 이러한 技術 즉 應用을 가능케 하는 原理들을 問題 삼을뿐 그 應用은 그들의 본래적 임무가 아닌 것이다. 教育學, 政治學은 그들 獨自의 道具, 學的 體系로서 文化를 創造해 낸다. 즉 政治學, 經濟學, 教育學은 技術을 발명해 내고져 하지만 技術學은 아닌 것이다. 만약 圖書館學이 圖書館運營의 學이라고 한다면 教育學, 政治學과 같은 性質의 學問이라는 주장은 허구성을 면치 못한다.⁽¹⁵⁾ 과연 圖書館學은 圖書館運營의 學으로 밖에 자리를 잡을 수 없는가?⁽¹⁶⁾ 圖書館學은 文化創造의 獨自의 道具를 가지는가? 圖書館學의 文化創造의 獨自의 道具를 확보하기 위해 人間行爲의 보편성을 가진 圖書館의 行爲를 假定한 바 있다.

이 假定을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圖書館의 기존 定義를 分析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分析된 定義들이 圖書館의 모든 定義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韓國 圖書館學者들의 論文이나 著書들에서 자주 引用되는 定義들을 택함으로서 일단 신뢰성 있는 定義들을 分析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 表를 보면 分析된 定義들간에 圖書館 對象의 영역에서는 거의 일치를 보이지만 存在意義와 方法論에 대해서는 많은 定義들이 무관심한 상태다. 그리고 이 定義의 分析에서 두드러진 것은 圖書館을 한 組織體 혹은 機關으로서 固定시켜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圖書館活動을 부과된 業務의 수행 정도로 보게 한다. 여기서 일단 分析된 定義들의 細目을 다시 分析 종합해 보기로 하자. 이 定義들의 分析에서 圖書館이 社會와 人間에 대해 갖는

(15) 이흥주는 “도서관학의 문제점”에서 도서관학을 技術學이라고 하고 教育學, 政治學도 圖書館學과 같은 技術學이라고 했다. (이흥주, 도서관학의 문제점: 학문으로서의 도서관학, *op. cit.*, pp. 16—21.)

(16) 圖書館學이 圖書館運營의 技術에 관한 學이라고 하던가 이를 비판하여 文化賜達の 條件造成이라고 하던가 어느 쪽이던 文化創造의 獨自의 道具는 아닌 셈이다.

圖書館 定義 分析

定義體	區分	存在意義	方法論 (基本概念)	對 象		樣 相	活動原則	組 織 體
				實體的 對 象	機能的 對 象			
Butler ⁽¹⁷⁾		種族의 憶保存	記個人의意 識化					사회적기구 사회적수단
귀 예 ⁽¹⁸⁾		大衆의 識熱望	知			수 집	경제적, 자 유롭게 사용 시간 절약	
千惠鳳 ⁽¹⁹⁾						수집, 정 리, 보존	공 사	사회기관
鄭駁謨 ⁽²⁰⁾		學術과 文 化의 發展	條件造成				공 사 기 관	
A L A ⁽²¹⁾				圖書 및 정 類似資料	리 讀書, 調 査, 研究			자료의 집 지, 건물
J L A ⁽²²⁾				기록된 知的資料	수집, 조 집, 보존			사회기관
중화민국 ⁽²³⁾				人類의 고 은思想 활동의 기록	보존정리		과 학 적 적	기 관
K L A ⁽²⁴⁾					수집, 정 리, 보관	讀書, 調 査, 研究 參考, 취 미, 오락		조직, 운영 의 시설
Britannica ⁽²⁵⁾				書寫된 資料 사진	film조직 연구, 調 査			수 집 처

중요성은 種族의 記憶, 學習과 文化의 發展, 大衆의 知識熱望 등의 概念으로 나타났다. 種族의 記憶保存은 그 種族이 계승되는 한, 그리고 이 계승이 새로운 種族으로의 發展을 意味하는 한, 그 種族의 生活이 남긴 文化를 축적하지 않으면 안된다. 文化와 學術을 누적시키려는 種族의 意志는 그 種族自體가 갖는 힘이다. 곧 民衆의 知識熱望은 文化蓄積의 意志를 보이는 種族의 根源의 힘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圖書館의 存在意義는 教育

(17) Butler, Pierce.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33. p. xi.

(18) 鄭駁謨. "圖書館學이 새로운 體系: 文化暢達의 經濟的 方法論의 展開". *중앙대논집* 14, 1969. p. 69 재인용

(19) 千惠鳳. "圖書館의 定義", *圖書館實務便覽*. 서울, 韓園協, 1966. p. 11.

(20) 鄭駁謨. *op. cit.* p. 74.

(21)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 Chicago, ALA, 1943.

(22) 日本圖書館協會編. *圖書館ハンドブック*, 改訂版. 東京, 同協會, 1960. p. 17.

(23) 中華書局編輯部. *圖書館要旨*. 臺北, 同局, 1958. p. 5.

(24) 韓國圖書館協會編. *圖書館用語集*. 서울, 同協會, 1966. p. 29.

(25) *Encyclopedia Britannica*, vol. 10, Chicago, 1975. p. 856.

의 存在意義와 거의 그 軌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未成人을 가르친다는 것은 成人世代가 향유하는 文化를 空間的, 時間的으로 확대 한다는 意味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教育의 行爲는 人間의 存在를 가능케 하는 원천적 힘이라고 하는 점은 이러한 論旨에 입각한데서 나온 것이다.

圖書館學的 體系에 대한 논쟁은 圖書館의 存在意義에 대한 확실한 信念, 一이 信念은 認識論的인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理念이어야 한 다—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Dewey의 圖書館 思想이 「보다 나은 世界에 의 도달」⁽²⁶⁾이라고 표명되는 것은 확실히 Dewey로 하여금 近代 圖書館學的 元祖라고 일컫게 할 만한 것이다. 그의 「經驗이 풍부한 教育者의 指導者의 發見과 訓練, 그리고 씨뿌리기」⁽²⁷⁾라고 한 圖書館 事業의 理念은 圖書館學的 體系를 구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며 특히 「씨뿌리기」⁽²⁸⁾는 그 意味가 社會의 모든 文化의 繼承과 擴大의 方法論的인 지사일 수 있을 것이다.

圖書館의 方法論은 “個人的 意識化”와 “條件造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個人的 意識化와 條件造成은 그 自體가 對照를 이루고 있다.⁽²⁹⁾

“個人的 意識化는 保存된 文化들을 知識을 열망하고 있는 人들(民衆)에 게 어떻게 가치있고 효과적인 方法으로 전달시키느냐를 그 基本問題로 삼는다. 이때 個人은 圖書館의 主體가 되며 圖書館은 이 個人的 知識熱望을 충족시켜줄 임무를 갖는다. 만약 人間의 知識熱望 충족이 圖書館의 任務라면 圖書館은 個人에 對해 自律性을 가질 수 있다.

이에 比해 條件造成은 個人에 對해 스스로 自律과 自由를 확보하러 하지 않으며 受動的인 統制의 機能, 혹은 機械的인 體制整備를 통한 能率化의 機能을 요구할 뿐이다. 즉 圖書館에 있어서 “選擇”의 機能은 오로지 個人에게 맡겨버리는 셈인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條件造成은 圖書館의 行爲의 實體

(26) 金世翊, 圖書館과 社會.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1. p.39. (韓國圖書館學叢書)

(27) *loc. cit.*

(28) Dewey는 圖書館이 人間의 보다 높은 生活 境界의 誘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loc. cit.*)

(29) 兩者는 곧 圖書館의 일반적 傾向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個人的 意識化와 圖書館의 行爲의 實體性을 예견케 하며 條件造成은 圖書館의 奉仕, 技術的 性格을 보여준다.

性⁽³⁰⁾을 假定한다면 그 方法論으로서 受容될 수 없는 性質의 것이다. 다만 條件造成은 個人的 意識化的 過程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技術的 問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圖書館의 對象은 거의 모든 分析된 資料에서 同一하게 나타나고 있다. 實體的 對象으로는 圖書 및 類似한 一切의 資料, 요컨대 기록된 모든 人類的 思想과 活動이라고 지적되었으며 특히 기록된 知的 文化財라고 한 것을 보면 圖書館은 人間의 知的 活動과 知識熱望을 주로 그 對象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圖書館은 人間의 蓄積된 文化가운데 生活로서는 傳承되지 못하는 文化들을 傳達하려는 社會的 意志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圖書館의 機能的 對象은 保存, 整理, 組織, 管理 등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는 圖書館이 行할 매우 당연한 業務의 內容이 될 것이다.

圖書館 活動의 原則은 “經濟的, 科學的”인 것과 奉仕의 두가지 性質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經濟的, 科學的이란 소위 最小의 努力으로 最大의 成果를 거둔다는 意味 그대로 意圖한 바를 意圖한대로 精確하고 바르게 到達한다는 意味를 同時에 갖는다. 그리고 目的에 達하도록 도와주는 일 자체에서 奉仕活動의 意義를 찾을 수 있다. 즉 奉仕라는 言語는 어떤 일의 수행에 間接적으로 참여하므로써 그 일의 수행에 助力한다는 뜻이다. 이런 뜻에서 學校의 活動이나 研究의 活動을 奉仕라고는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해 官廳이나 宿泊業所의 活動은 奉仕라는 말이 알맞다. 學校는 그 自體가 目的이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理想(다시말해 文化暢造와 같은 것)에 속하지만 官廳이나 宿泊業所는 그렇지 못하다.

圖書館의 活動은 奉仕의 영역에 속하는가? 圖書館의 任務遂行은 目的에 대해 항상 手段的 價値 밖에 없는가? 圖書館 自體가 目的일 수 있고 圖書館의 任務 自體가 自律性을 갖는 社會的, 人間的, 事象이라고 한다면 그 活

(30) 圖書館의 行爲의 實體性의 問題는 圖書館學의 認識論의 問題의 핵심이며 이런 문제는 일부 圖書館學者들의 관심의 的이 되고 있다. (Shera, Jesse H. "An Epistemological foundation for library science," *The foundation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Chapter 4. New York, Becker and Hayes, 1972.)

動의 成質은 奉仕이상의 것일 필요가 있다. “科學的, 經濟的”인 것은 그 對象이 되는 活動을 因果律이 지배하는 現象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서 記述說明, 統制가 가능하다는 것을 假定한다. 요컨대 理論의 形成에 준하는 活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圖書館活動은 그 本質에 있어서 奉仕의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過程上에서 奉仕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圖書館活動이 수행되는 영역은 讀書, 調查, 研究, 情報提供, 취미, 오락에 있다. 이는 그 영역이 거의 知識產業에 국한되어 있음을 본다. 知識은 人間의 認知的 活動의 所産이고 또 知識은 人間의 “理解”의 “行動”으로 傳承 發展된다. 圖書館은 人間의 理解活動을 촉구하고 조정하며 개발한다. 圖書館은 根本的으로 人間의 探究活動에 관여한다.

마지막으로 圖書館은 한 組織體로서 認定되고 있다. “施設” “建物” “資料의 集書” “社會的機構” “社會的 手段” 등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分析에서 圖書館의 行爲의 基本命題들이 밝혀진다. 즉 첫째 文化는 整理된 形態로 축적된다. 둘째 人間은 축적된 文化를 습득하므로서 文化를 創造한다. 셋째 文化와 個人은 意圖的으로 관계 맺어진다. 넷째 圖書館은 文化와 利用에 대해 自律性을 갖는다.

여기에서 整理는 文化內容의 단순한 배열이 아니라 새로운 意味부여의 뜻을 가지며 習得이란 그 文化가 個人들에 의해 時·空間的으로 繼承된다는 뜻이며 이때의 繼承은 새로운 文化의 形成을 포함한다.

圖書館의 行爲의 主體로서 人間은 讀書, 調查, 研究, 情報活動을 수행하고 있는 現實的 個人이며 文化는 이 現實的 個人的 기초와는 관계없이 그 自體의 體系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兩者의 관계는 發生的일 수 없다. 兩者의 관계는 所爲를 갖고 맺어진다. 이 특수한 所爲를 만들어내는 媒體로서 圖書館이 存在한다.

아마 圖書館의 所爲를 一般화한다면 가장 값어치 있는 文化를 時間的, 空間的으로 繼承하고 人間이 文化를 自己의 것으로 化하는 過程이라고 표현될 것 같다. 즉 圖書館의 行爲는 文化와 個人에 관한 理想과 現實⁽³¹⁾을 동시에

문제 삼으면서 現實을 理想으로 引導하고 指向시켜 나가는 過程이라는 것을 承認케 한다.

따라서 圖書館學은 이런 現實을 理想으로 높이는 資料와 方法을 모색하여 理論化 시키며 이 理論化를 위해서 文化財(資料)와 方法的인 組織의 技術을 확립하는 科學이어야 할 것이다.⁽³²⁾ 이렇게 보면 圖書館學이란 說明科學이면서 規範科學이라는 것을 알게된다. 실제로 모든 社會科學들은 說明과 規範의 양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社會科學의 對象들 自體가 완전히 法則으로 진술될 만큼 철저한 因果性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더 나아가지려는 人間의 노력에 의해 끊임없이 修飾되기 때문에 科學이면서 規範의 問題를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當爲規範의 문제로 事實化를 위한 科學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當爲의 영역이 남김없이 事實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다. 圖書館學을 社會科學으로 承認하는 한 이런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다시 一般科學의 하나로서 圖書館學을 論議한 것 외에 圖書館學이 社會科學內의 다른 科學에 비추어 어떤 特殊性을 갖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圖書館學은 직접 圖書館의 行爲를 (人間行爲의 一部)를 解釋할 수는 없다. 圖書館學은 이 行爲의 說明을 위해 다른 科學의 成果를 필요로 한다. 圖書館學은 文化와 社會의 形成 進歩의 法則을 究明하지는 않는다. 이를 研究하는 다른 科學의 成果를 또한 利用한다. 이런 科學의 成果를 資源으로 하여 圖書館 過程을 組織하는 方法的 技術을 組織하기 위해, 또한 다른 既成理論들을 利用한다. 즉 圖書館學은 綜合科學의 性質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綜合科學은 글자 그대로 다른 基礎 科學위에 다시 세워진 科學이다. 諸 科學의 成果위에선 科學이라면 곧 諸 基礎 및 補助科學을 應用하는데서 나

(31) 여기서 理想은 社會가 바라는 文化와 個人이 文化를 自己化함으로써 그 個人이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人格이며 現實은 이러한 理想을 향해 나가는 文化와 個人的 條件들이다. 圖書館의 이러한 理想은 오히려 非圖書館人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Gates, Jean Key. *Introduction to librarianship*. New York, McGraw-Hill, 1968. pp.1-3)

(32) Shera, Jesse H. *The Foundation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1972. p.132. (Because librarianship is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utilization of the social transcript by human beings it is fundamentally a behavioristic science, ...)

은 問題를 중심으로 세워진 學問이라고 말할 수 있다. 應用은 확립된 理論을 基礎로 現實을 보다 발전되게 한다거나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道具 혹은 體制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意圖에서 存在된다. 이런 견해가 바르다고 한다면 圖書館學은 應用科學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應用科學의 基本性質에 비추어 技術學의 性質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圖書館學은 社會科學의 한 分科學이면서 하나의 技術學이다. 즉 社會科學으로서 圖書館學은 獨自의인 圖書館의 行爲를 人間的, 社會的 行爲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며 圖書館學은 이 行爲를 法則으로 진술하기 위한 科學的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圖書館學은 技術學으로서 圖書館 “業務”의 效率化를 기하는 道具와 體制를 만들어가야 한다.

結論的으로 圖書館學을 단순히 技術學으로서 定立시키는 것은 圖書館學의 體系를 매우 人爲的, 組織的으로 하게 할 것이며 또 단순히 技術을 中心으로 한다면 그것은 이미 學이 될 수 없다. 教育學, 政治學, 經濟學과 같은 學問들이 技術學의 性質을 가졌다고 해서 결코 이들 學問들을 技術學이라고 국한하지는 않는다. 이들 學問은 그 學問 各자가 갖는 固有한 人間的 社會的 行爲를 탐색하면서 동시에 이 行爲들의 理想化를 意圖하는 것이다. 圖書館學도 이들 學問과 같은 性質의 學問이다. 요컨대 圖書館學은 科學 일 수 있다는 것이다.

IV. 圖書館學의 體系試圖

體系化란 現象에 대한 意味부여의 作業이다. 즉 現象은 그것이 體系를 이루기까지는 무질서의 상태이며 體系化는 이 무질서에다 어떤 질서를 세우므로써 어떤 意味를 일관성있게 전달하는 人間的 意圖이다. 물론 體系는 주어진 現象을 分析 綜合하므로써 形成되지만 일단 形成된 體系는 포괄적이고 특히 現象에 지배하는 原理가 되기도 하고 現象을 관련지우는 構造的 틀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圖書館學 體系는 圖書館의 存在意義로부터 圖書館 業

務의 效率的 方案과 設備까지를 포함하는 構造的 틀이다.

圖書館學의 體系를 구상하기 위해 먼저 圖書館學이 科學임을 다시 確認한다. 科學이므로 圖書館學의 概念이나 陳述은 科學의 言語로서 表現될 수 있음을 먼저 말해둔다. 圖書館에 관련된 價値 혹은 理念의 문제는 일단 圖書館學의 體系 밖에 있다. 그것들은 圖書館學의 周邊理論으로서 —그것들이 周邊理論이라고 해서 없어도 된다는 意味가 아니다— 圖書館學을 研究하는데 있어서는 없어서 안된다. 科學으로서의 圖書館學의 體系를 수립키 위해 「圖書館」은 科學의 對象이 될 수 있도록 操作해 보자. (33)

圖書館은 人間의 探究의 行爲의 組織的 形成이라고 定義된다. (34) 이 定義는 圖書館定義의 分析에서 나타난 基本命題들을 科學의 對象이 될 수 있도록 操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整理된 文化는 個人的 習得을 통하여 계승된다고 할 때 人間의 文化習得 行爲는 어떻게 가능한가? 또 그것을 意圖的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은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 圖書館은 이 물음에서 人間의 探究의 行爲의 構造, 그것의 形成패턴, 그것의 形成, 計劃 등과 같은 概念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의 探究의 行爲는 記述, 說明, 豫言, 統制가 가능한 行動이다. 探究는 「發見하기 위해 發見의 새로운 道具를 찾아 헤메는 人間의 精神狀態」(35)이다. 圖書館은 이런 探究를 문제삼아 이 探究를 促進, 組織, 評價하기 위한 探究의 形成體制가 될 것이다. 그리고 探究를 形成한다는 것은 探究의 行動 즉 現象에 대해 特定の 意味賦與가 이루어진 狀態이다. (36) 人間이 향유하는 모든 文化는 生産된 意味의 蓄積이며 人間이 意味를 生産함은 결국 蓄積된 文化와 蓄積될 文化의 關係를 통해 理解되는 企業이다.

또한 圖書館 業務의 普遍성은 探究의 行動을 形成하는 “組織性”에 있다.

(33) 이는 圖書館 “觀”의 문제이다. 이때의 觀은 圖書館의 理念이나 方法의 觀이 아니다. 圖書館의 行爲를 現象으로서 파악해 보는 일이다.

(34) 筆者의 圖書館學의 體系化에 관한 研究(圖書館學論集 4집, 1977.)에서 이미 시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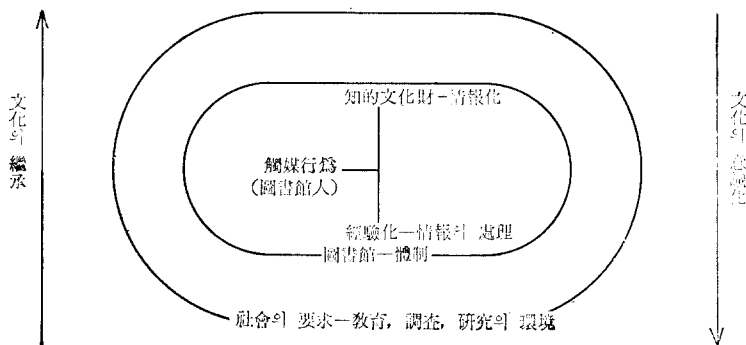
(35) Wilson, John T. "Processes of Scientific Inquiry: A model for teaching and learning science," *Science of Education* vol.58, No.1, 1974.

(36) 金正昭, *op.cit.* p.13.

理論과 技術에 의해 進행되는 探究行動이 이 “組織的”이라는 言語를 代表한다.⁽³⁷⁾ 이런 意味에서 “組織的”이란 첫째 무엇을 發見하려는가 一明白한 目的의 이 있느냐? 一 둘째 어떤 計劃과 過程을 가지고 있느냐? 一 目的을 能率的으로 수행할 수 있는 方途가 있느냐? 一 하는 두 條件을 갖는다. 圖書館에서 “이렇게” 奉仕한다는 것은 바로 이 組織的이라는 言語로서 說明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볼 때 圖書館의 行爲는 圖書館에 국한되지 않는다. 探究行動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探究行動의 形成프로그램이 있는 곳은 圖書館理論의 實證의 場이 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圖書館 즉 探究的 行動의 組織的 形成을 다음과 같이 圖示해 본다.

探究的 行動의 形成



이 圖示는 科學으로서 圖書館學的 體系樹立의 原理가 된다. 요컨대 이 圖示는 探究的 行爲의 組織的 形成이라는 圖書館을 정확히 記述하고 그속에서 法則을 근거삼아 豫言하며 統制할 수 있는 理論을 構成하는 原理이다. 물론 이 理論은 經驗에 의해 實證될 수 있다.

여기서 제안되는 圖書館學的 理論模型은 知的 文化財를 經驗化하는데 관련된 理論 I, 理論 I에서 취급된 經驗化 過程에 직접 影響을 미치는 圖書館

(37) *Ibid.*, p.14. (우선 여기서 “組織的”이라고 하는 것은 自然的인 것을 내세운다)

體制에 관련된 理論Ⅱ, 理論Ⅰ과 理論Ⅱ의 過程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 간접적이라고 해서 결코 그 영향력이 적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全體의 方向設定의 本質의 영향을 미친다— 教育, 調査, 研究의 風土에 관련된 理論Ⅲ이다. 여기에 教育, 調査, 研究의 환경은 具體的으로 圖書館의 活動 限制와 가능성을 規定하는 것들이라, 또한 圖書館 活動의 總體的 評價를 指導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文化繼承과 文化의 意識化에 관련된 理論Ⅳ는 科學으로서 圖書館學 理論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 그러나 圖書館學의 體系에서 없어서는 안될 理論이다. 理論Ⅳ는 일단 圖書館學의 核心的 理論과는 달리 周遊의 理論으로 한정한다. 廣邊理論이라고 해서 결코 그 理論으로서의 價値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理論Ⅰ은 ① 知的 文化財를 情報化하는 데 관한 理論, ② 利用者가 知的 文化財를 經驗化하는, 요컨대 情報를 處理하는데 관한 理論, 그리고, ③ 知的 文化財와 利用者를 媒介하는 圖書館人의 思考와 行動을 組織하는 理論등 세 理論으로 構成된다. 즉 理論Ⅰ에서는 圖書館의 行爲의 核心的 機能을 中心으로 하고 있다. 즉 圖書館의 行爲는 保存하고 있는 文化的 遺産을 利用者에게 제공하여 그 探究의 行爲를 촉진하고 探究的 行爲를 意圖한 방향으로 끌고갈 수 있도록 調整할 수 있는 概念, 法則, 理論을 構成하고자 한다. 情報는 行動의 方針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事前知識이라고 定義되고,⁽³⁸⁾ 혹은 行動科學의 立場에서 情報는 앞은 目的으로 주고 받는 impulse⁽³⁹⁾라고 定義될 때, 그리고 圖書館의 行爲가 주어질 知的 文化財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動力化하는 것이라고 할 때, 圖書館의 行爲의 核心은 어떻게 주어질 知的 文化를 情報化하느냐에 의존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情報가 「人間의 知的 所産 또는 어떤 事實이나 事件에 관한 기록으로서 그것이 智慧를 發動시키는 要因이 되는 것」⁽⁴⁰⁾이라고 할 때는 圖書館의 行爲가 利用者의 探究

(38) Dulles, Allen Welsh. *The Craft of intelligence*.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65.

(39) 笠伸平, “インフォツョンテリツヅヅ, 情報科學 Vol.1, No.1, p.18.

(40) 鄭駁談, 情報科學의 屬性과 文獻情報學, 圖書館學報 2집, 1973, p.140.

的 行動을 知識(學問)에 도달토록 知的 文化財를 再組織(情報化)하는 問題 入을 더욱 분명히 한다.

전통적인 文化의 領域, 예컨데 通常의 學問領域 그리고 각 學問內에서의 下位領域, 下位領域內의 目錄 등이 利用者의 探究的 行動을 効率化할 수 있을 것인지의 問題는 知的 文化財의 情報化와 관련하여 주요한 問題가 될 것이다. 이는 곧 圖書館 利用者의 探究的 行爲의 効率化에 적절하도록 通念의 學問的 分類 및 각 學問內의 系列을 再組織해 볼 수 있는 挑戰 일 수도 있다. 요컨데 理論 I 의 知的 文化財의 情報化 理論은 知的 文化財의 效率的 經驗化를 위해 이들 文化財를 經濟的 生産的으로 組織, 提示하는 方法論에 관한 理論이다.

理論 I 의 利用者의 情報理論은 情報處理의 方式에 관한 問題를 中心으로 이루어진다. 이 問題는 圖書館學에 관한 지금까지의 우세한 관점에서 본다면 圖書館學의 研究範圍 밖이다. 사실 이 問題는 人間의 認識, 특히 「어떻게 認識하느냐」와 같은 心理學的 문제에 속한다. 個體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자극 즉 情報를 概念으로 획득하는 過程에 관한 問題이다.

圖書館이 人間의 探究的 行動을 形成하는 일인 한 人間이 자신의 探究主題에 맞는 概念을 획득하는 過程을 効率化할 수 있는 方案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圖書館學에서 취급하는 情報處理의 문제는 이에 관한 心理學的 研究의 成果를 基礎로 한다. 그러나 圖書館學의 관심은 情報를 人間行動의 原因일 수 있는 “impulse”⁽⁴¹⁾로 단들기 위한 利用者(探究的 行動)의 心理的 期待에 있으며 최선의 結果(探究的 行動의 結果)를 얻어내기 위한 情報處理의 模型의 開發에 있다. 情報處理의 模型은 人間의 心理的 期待에 의거한 것이기 보다는 處方的, 調劑의 性質을 가진 것일 수도 있다.

圖書館 資料 즉 知的 文化財는 그 文化財가 갖는 體系에 따라 整理, 組織되는 方式과 利用者의 情報處理의 과정에 준해 整理, 組織되는 方式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假說的으로 성립한다.

(41) 笠仲平, *op.cit.*, p.13. (impulse는 情報의 心理學的 概念이다)

그리고 理論Ⅰ에는 知的 文化財를 利用者에게 매개하는 圖書館人의 역할에 관한 理論이 포함된다. 이는 圖書館人이 단순한 圖書의 管理者로서가 아니라 探究的 行動의 引導者로서 역할하기를 期待하므로서 성립된다.

圖書館人의 역할에서 有意한 概念이라면 圖書館人의 圖書館 觀, 그의 철저성, 그의 文化創造에의 參與意識, 그의 心理學的 背景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對人關係의 技術, 論理的 說明의 方法, 特殊分野에의 專問的 知識과 技術 등도 探究的 行動의 形成, 즉 利用者의 探究活動에 影響을 주는 要因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要因들에 대한 明確한 定義는 社會學, 心理學 教育學의 어떤 理論들로부터 그 지원을 얻어 圖書館學의 範疇 안에서 形成되어야 할 것이다.

理論Ⅱ는 圖書館의 體制에 관한 理論으로 구성된다. 圖書館의 行爲를 條件지우는 環境의인 變因을 일컫는다. 모든 人間 行動의 說明에서 環境이 有機體와 同等한 資格을 갖춘 概念으로 등장하는 것과 같다. 心理學은 人間 行動의 說明에 環境의 變因을 認定하면서도 여전히 有機體의 變因보다 적게 概念化되고 있으며 社會學은 이런 경향의 逆을 짐작케 한다. 圖書館은 매우 뚜렷한 目的을 갖인 사람들이 行動하는 곳이며 그의 行動의 存在方式은 未知의 探索을 위한 機知의 調査로서 存在한다. 그래서 圖書館에서의 活動은 어떠한 경우에도 制約되어서는 안된다. 社會的, 政治的 關係를 떠나서 圖書館에서 活動하는 人間の 概念은 自由教養人 혹은 學者의 人性일 것이다. 그렇다면 圖書館學은 環境, 즉 圖書館의 體制를 “造成” “能率” “資源” “刺戟” “指導”와 같이 概念化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圖書館의 體制는 人間の 多方面의 興味와 勞力을 최대한 확보하는 信念위에서 있다는 主張을 성립시킨다. 人間組織, 設備, 施設, 豫算, 管理 등으로 구성되는 圖書館의 體制的 變因들은 사실상 任意로 計劃하고 組織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를 위해서 圖書館의 體制 즉 環境을 어떻게 概念化하며, 그리고 이 概念들과 圖書館 行爲의 效果들간의 法則들을 定立하는 일이 따른다.

理論Ⅲ은 圖書館의 行爲를 社會的 環境이 어떻게 條件化하느냐에 관한 理

論이다. 圖書館的 行爲에 있어서 社會的 環境은 研究, 調查, 教育의 風土로서 表現된다. 圖書館은 一般的으로 社會的 環境이라고 할 때의 概念들 예컨대 階層이나 社會變化, 혹은 收入이라고 하는 것과는 관련없다. (넓게 보면 물론 관련이 있지만 理論을 구성할 만큼의 관련을 갖지는 않는다) 즉 研究의 風土가 圖書館的 行爲에 대해 어떻게 影響을 주느냐가 圖書館學의 主된 관심이다. 그리고 研究活動, 調查活動, 教育活動은 대개 社會的 環境이긴 하지만 社會學의 어떤 實體的 概念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 活動들을 들어내기 위해서 逆으로 圖書館이 이들 活動을 社會에 들어내는 方式들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단 圖書館은 學校의 教育活動과 圖書館의 관계, 社會教育의 機關으로서 圖書館과 住民들의 興味와의 관계, 政策立案과 評價의 資源으로서 圖書館과 社會變化의 關係 등에 대한 理論을 구성하고자 한다. 圖書館은 教育活動의 本質을 이루는 自己探索의 場으로서 概念化되고 그리고 平生에 걸친 自己向上的 機會로서 社會進步의 手段의 힘으로서 概念化할 必要가 있다.

이상의 理論들을 要約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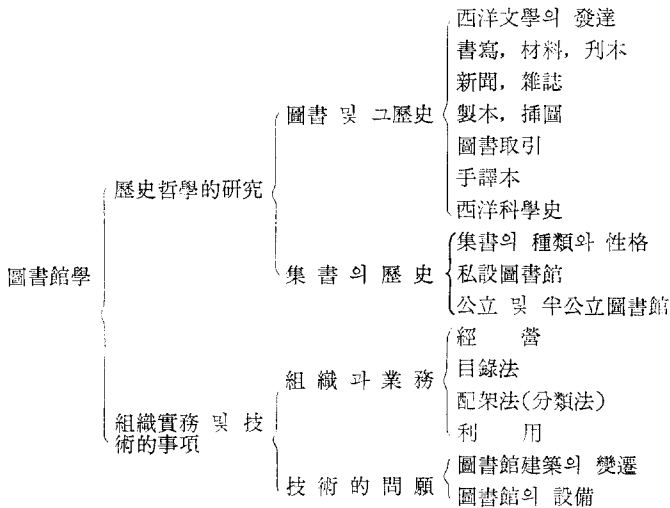
- 理論Ⅰ 1. 知的文化財의 情報化理論
 2. 知的文化財의 經驗化 즉 情報處理 理論
 3. 圖書館人의 媒介行動理論
- 理論Ⅱ 4. 圖書館 體制理論
- 理論Ⅲ 5. 學校의 教育活動 指導理論
 6. 地域社會 住民의 興味擴張理論
 7. 社會改善의 資源理論
-
- 理論Ⅳ 8. 文化繼承의 原理的 接近理論

여기에서 理論Ⅳ는 圖書館學의 核心이라기 보다는 周邊的 理論이다. 理論Ⅳ는 規範的 性質을 띤 理論으로서 이미 科學的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周邊的인 것이라고 해서 없어서 괜찮은 것은 아니다. 꼭 있어야 하지만 적어도 科學으로서 指向하는 圖書館學에서는 周邊에 있을 수 밖에 없다. 圖書館

의 哲學的 歷史的 研究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상의 8個理論은 물론 文化創造의 人間行爲로서 圖書館的 行爲를 前提하고 그 行爲를 記述, 說明, 豫言, 統制할 수 있다는 信念위에 수립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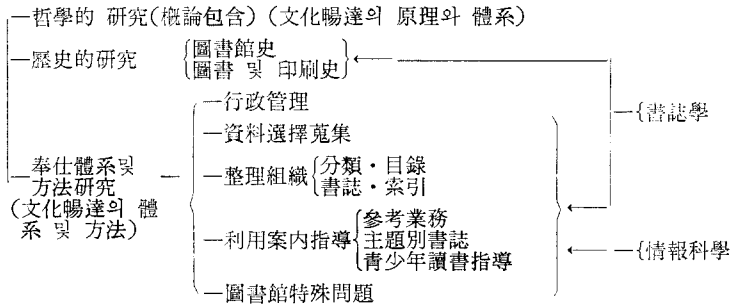
여기서 이 理論들로 이루어진 學的 體系를 既存 圖書館學의 體系들과 比較 檢討해 볼 필요를 느낀다. 檢討를 위한 資料로서 選定된 몇개의 圖書館學 體系는 대개 두개의 性質을 代表하는 體系들로 나누어 질 수가 있었다. 즉 하나는 圖書館運營의 專門의 技術을 代表하는 體系이고 다른 하나는 圖書館의 社會的, 歷史的, 機能과 運營의 技術을 동시에 나타내려는 體系이다. 前者의 代表的인 例로서는 Mary Plummer의 體系를 들 수 있다.⁽⁴²⁾ 그는 圖書館學을 ① 管理, ② 技術, ③ 書誌, ④ 批判, ⑤ 기타로 領域化하고 各 領域이 포함하는 內容은 圖書館 業務의 遂行에 어떤 直接的 效果를 줄 수 있는 것들로 構成하고 있다.⁽⁴³⁾ 그러므로 各 領域이 나타나고, 各 領域內의 諸內容들은 어떤 內的規律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42) 鄭曉謨, “圖書館學의 새로운 體系: 文化暢達의 經濟的 方法論의 展開”, *op.cit.* p. 79.

(43) 學問하기 위한 條件은 內的規律이다.

後者의 代表的인 例로서 獨逸의 Kirchner의 경우를 들 수 있다.⁽⁴⁴⁾ 그리고 앞
면의 Kirchner의 체계에 대해 椎名六郎씨는 이 體系를 學的 體系가 될 수 있
는 필연적인 原理가 일관되어 있지 않고, 科目과 科目사이에는 內面的 聯關을
가지는 紐帶的인 것이 통해 있지 않으므로 「學的 體系라고 볼 수 없다」⁽⁴⁵⁾고
批判하고 있지만 圖書館의 社會的, 歷史的 意義를 認定하고 있는 점은 分明
히 圖書館學 體系 樹立에 큰 示唆가 된다. 그리고 鄭駟謨 教授는 上記 두 體系
에 대해 다같이 批判하기를 우선 두 體系는 圖書館學이 現象論的 定義를 基礎
로 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 體系의 各 領域 및 內容들은 서로간 適合性을 갖
기보다는 短篇的 現象들을 취급하는 그런 性質의 領域 및 內容들이라고 批
判한다.⁽⁴⁶⁾ 그리고 鄭教授의 소위 本質論的 圖書館學의 定義 즉 「文化創達의
經濟的 方法論」⁽⁴⁷⁾에 입각한 體系를 다음과 같이 概觀하고 있다.⁽⁴⁸⁾



그러나 이 體系 역시 鄭教授가 批判했던 두 體系의 範圍를 벗어나지 못하
며 體系가 갖는 內的 規律을 찾기가 힘들다. 우선 圖書館學의 學的 性格이
不分明하고 哲學的 研究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文化創達의 原理와
體系를 樹立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奉仕體系 및 方法研究도 마찬가지이며
그 內容領域도 圖書館技術의 要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圖書館學의 體系는 美國의 一般的 學問風土를 代表하는, 특히 初期 圖書

(44) Kirchner, Joachim. *Bibliothekswissenschaft*. Heidelberg, 1951. S.2.

(45) 椎名六郎. 圖書館學概論. 東京, 藝藝圖書, 1960.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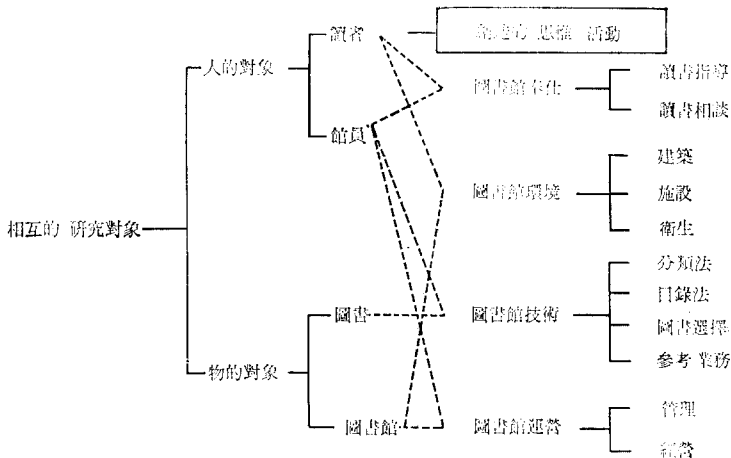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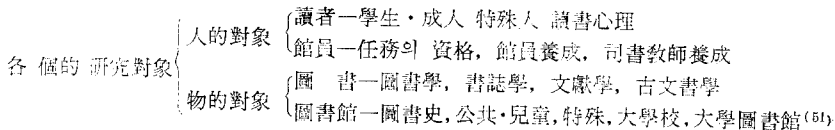
(46) 鄭駟謨. *op. cit.* pp.79-80.

(47) *Ibid.* p.15.

(48) *Ibid.* p.22.

館運動을 주도했던 Columbia大學의 圖書館“觀”이 지배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圖書館은 公衆의 福祉에 奉仕하는 機關이며 그래서 圖書館은 奉仕의 概念에 맞게 組織되어야 한다는 것」⁽⁴⁹⁾ 바로 이러한 思想이 많은 美國의 大學들에서 내세운 圖書館學의 體系로 確實히 이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⁵⁰⁾ 그러나 分明히 이런 경향에 참가하여 圖書館에 대한 社會的, 歷史的 意義를 강조하는 概念들이 도입되고 아울러 哲學的, 歷史的, 研究가 行해지고 있다. 哲學的, 歷史的 研究의 도입은 確實히 圖書館學의 學問的 成長을 도운 것임에 틀림없지만 한편 이들로 인해 圖書館學이 學問이 아닐 수 있다는 通念을 아울러 남겨하고 있는 것 같다.

圖書館學이 社會科學에 포함될 수 있는나? 중요한 물음이다. 圖書館學이



(49) 金世瑯, op.cit. pp.35—36.

(50) 研究者가 調査한 數개의 圖書館學科 教育課程의 分析은 이 事實을 뒷받침하고 있다.

(51) 藤林忠, “圖書館學의 基礎問題”, 山口大學教育學部研究論叢, Vol.1, No.1, 1951, pp.154—162.

科學이라면 科學的인 概念, 法則, 理論을 發展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 입장을 土臺로 圖書館學的 體系 수립을 試圖해 본 藤林忠은 圖書館의 中心的 現象을 情報傳達로 보고 情報의 傳達은 人間(讀者)과 資料와의 結合에서 成立된다고 하여 이를 基礎로 圖書館學的 體系를 定立한 바 있다. (56p. 圖表)

이 體系는 分明히 圖書館學을 科學으로 불러는 意圖가 分明하다. 「情報의 傳達」의 概念으로 이루어진 이 體系가 全體的으로 圖書館學的 모든 主要概念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또 이로부터 나타난 理論이 自律性和 網羅性を 充分히 保存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體系는 情報傳達의 過程에서 傳達主體로서의 人間과 傳達媒體로서의 圖書를 對立시키고 兩者의 關係를 効率化하는 業務內容을 概念化시키고 있다. 그리고 利用者 즉 讀者를 創造의 思惟活動의 主體라고 봄으로서 圖書館의 全體制를 奉仕하는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이 思惟活動을 形成하는 體制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本研究에서 試圖된 體系와 거의 같은 脈絡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理論은 現象을 記述, 說明, 豫言하는 힘을 소유한 論理的 構造로서 表現된다. 圖書館的 現象을 直接對象으로 하여 分析, 綜合된 圖書館學的 理論은 바로 圖書館 現象의 論理的 構造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體系는 그런 論理的 構造를 結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즉 圖書館學과 圖書館이 구별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는 것이다. 즉 이 體系는 圖書館學이 圖書館 現象을 記述, 說明, 豫言도 하고 동시에 圖書館 運營의 効率을 위한 技術도 제공하며, 圖書館 思想도 形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이러한 圖書館學的 體系들은 本研究에서 제안된 理論模型을 매우 근거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한다. 즉 圖書館의 知識과 技術이 受動的인 文化形成의 條件 整備에서 文化形成의 獨自의 機能(資料의 情報化和 利用者의 情報處理를 통한)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圖書館의 傳統的 知識과 技術들이 전혀 쓸모없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圖書館의 새로운 機能, 文化創造의 方法論에 對해 再組織되고 修正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本研究에서의 圖書館學 理論的 模型을 더 검토해 보기 위해 大學 圖書館學科 教育課程을 分析하

보자. 各 大學 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의 構成原理는 圖書館學의 體系이기 때문이다. 圖書館學의 先驅的 역할을 담당했던 Columbia大學의 教育課程⁽⁵²⁾은 크게 첫째 歷史와 機能의 研究, 둘째 圖書館의 行政의 管理에 관한 研究, 셋째 圖書 및 이에 상응한 資料의 蒐集과 整理에 관한 研究, 넷째 圖書館의 資料運用技術에 관한 研究, 다섯째 圖書館 人口(利用者)의 圖書利用에 관한 研究 등으로 組織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歷史的 研究에서 圖書館의 社會的 價値를 한 課程으로 構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圖書館의 社會的 機能을 論하므로써 圖書館이 社會에 대해 갖는 獨自的 철을 設定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圖書館 資料에 관한 研究에서 構成되어 있는 課程들은 性質이 다른 資料들의 書誌로 이루어져 있고, 技術方法의 研究는 情報科學의 性質을 띤 강좌들이다. 이런 점들은 아직도 圖書館의 技術 中心的 體系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教育課程이지만 傳統的인 圖書館學의 體系에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美國의 傳統的인 圖書館 “觀”을 代表한다고 알려져 있는 Hawaii大學의 圖書館學 教育課程에서 圖書館의 情報科學的 機能의 강화를 보이고 있으며⁽⁵³⁾ 상당히 급진적인 圖書館 “觀”을 가진 California大學의 圖書館學科 教育課程은 情報科學的 機能이 더욱 두드러진다.⁽⁵⁴⁾ 즉 California大學 圖書館學科의 Forms and Movements of Publication, The Behaviorial Study of scientific information Flow, Foundations of Organization of Knowledge, The Analysis of Contents 등과 같은 강좌는 分明히 圖書館의 社會에 대한 讀者의 機能의 認識에서 출발하고 단순히 圖書館이 文化創達의 條件整備의 業務를 담당하는 受動的 機關이 아니라 文化創造의 獨自的 方法論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경향은 本 研究의 圖書館學 理論模型에 매우 접근해 있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教育課程이 本 研究에서 제안된 圖書館學의

(52) Columbia University. Bulletin, *School of Library Services*, 1971—1972. p.13.

(53) 金世翊, *op.cit.* p.131.

(54) Boll, John J. "A basis for library education", *The Library Quarterly* XLII, 1972. pp. 196—197.

理論模型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이라고 認定할 수는 없다. 本 理論模型은 圖書館的 行爲를 記述, 說明, 豫言할 수 있는 理論形成 즉 概念들의 自閉性을 고려한 것 들이다. 즉 理論Ⅰ은 理論Ⅱ보다, 理論Ⅲ은 理論Ⅳ보다 圖書館的 行爲를 더 精밀하게 記術, 說明, 豫言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는 圖書館學의 教育課程構成의 原理로 되어야 할 듯하다. 여기서 제안될 수 있는 圖書館學科 教育課程은 核心科程과 週邊科程으로 이루어지는 油層的 性質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圖書館學 教育課程의 核心課程은 公 知的 文化財의 情報化와 利用者(探究의 行爲者)의 情報處理 過程, 그리고 圖書館人의 情報媒介로 이루어진 理論Ⅰ을 核心으로 놓고 理論Ⅱ, 理論Ⅲ의 順으로 하며, 理論Ⅳ는 특히 週邊課程으로 와야 할 것이다. 理論Ⅳ는 圖書館學 教育에서 重要하지만 核心課程은 아니다. John J. Boll이 A Basis for Library Education에서 제안한 圖書館學 教育課程 模型은 本 研究의 中核課程 제안을 매우 타당하게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教育課程案에 대한 권고는 專門의 圖書館人의 養成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것은 단순한 圖書館 奉仕(type of service)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圖書館의 獨自的 機能을 考察하고자 하는데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⁵⁵⁾ 오킨데 그가 제의한 Core課程은 圖書館의 認識論의 근거위에서 社會的으로 成立되는 圖書館力을 代表하고 있다.⁽⁵⁶⁾

結論的으로 圖書館學은 社會科學의 一分科學이며 “科學이 되기 위해 圖書館的 行爲” 즉 圖書館 “觀”의 問題를 해명했다. 그리고 여기서 人間의 探究

(55) *Ibid.* p.195. (The suggestion is made that librarianship may well split not along the standard divisions by type of library, or by type of Service, but into factional clusters: bibliographical and readers' services; social, motivational, and public relations aspects, middle-and higher-level administration; school and children's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56) *Ibid.* p.199 (① That which is Common to all branches of a particular profession or ② That which distinguishes one profession from all others. If must consider and incorporate both criteria in curriculum revision and, as educators, add a teaching device ③ those learning experiences which every member of the profession, regardless of his specialty, must have gone through in order to function as an effective and sophisticated professional rather than as an artisan.)

의 行爲와 이의 組織의 形成이라는 두 概念을 確立하고 이 概念들을 記述, 說明, 豫言할 수 있는 法則, 理論을 形成하려고 試圖했다. 이 試圖는 기존 圖書館學 體系의 分析和 圖書館學과 教育課程의 分析을 통해 肯定的인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韓國의 大學圖書館學科 教育課程의 構成原理는 어떤 것일까 하는 問題는 이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韓國의 7個 大學 圖書館學科 教育課程은 본 研究者의 分析에서 볼 때 現代的 圖書館學의 體系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⁵⁷⁾ 크게 基礎領域, 資料領域, 資料組織領域, 經營·奉仕領域, 外國語領域, 情報學領域, 實習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圖書館業務의 能率的 遂行이라는 因習의이고 通念의인 관계에 따라 構成된 느낌이었다. 일단 韓國의 圖書館學科 教育課程의 構成 體系에 관한 研究는 다음의 機會로 미루고져 한다.

V. 結 論

圖書館學의 學的 體系에 대한 논쟁은 圖書館學의 발전에 오히려 큰 몫을 차지한다.

本 研究에서 試圖된 圖書館學의 體系는 圖書館의 行爲를 社會, 文化的 現象으로서 파악하고 이 現象을 記述, 說明, 豫言하려는 科學으로서 定立되었다. 科學으로서 圖書館學을 定礎하려는 작업이 先行되어야 할 필요에 좇아 우선 圖書館의 行爲의 實體性을 究明하고 이 行爲를 對象으로 하는 圖書館學의 性格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假說的으로 검토했다.

圖書館의 行爲의 實體性은 과연 圖書館의 行爲가 文化創造의 獨自의 道具로 될 수 있는가를 中心으로 하여 認識論的 問題와 科學的 問題로 分析되었다. 이 過程에서 圖書館의 行爲의 몇가지 基本命題가 倒出되었다. 첫째 文

(57) 本 研究者가 學部과정의 韓國 7個大學 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을 分析한 結果임.

化는 整理된 形態로 축적된다. 둘째 人間은 축적된 文化를 習得하므로써 文化를 創造한다. 셋째 文化와 個人은 意圖의으로 關係맺어진다. 넷째 圖書館은 文化와 利用者(人間)에 대해 自律性を 갖는다 등이다. 이 命題들을 통해 볼 때 圖書館에 대한 通念 즉 圖書의 蒐集, 整理, 그리고 利用者에의 奉仕라는 圖書館業務 中心的 圖書館 “觀”은 잘못된 것이며 아울러 이 “觀”위에 선 圖書館學은 결국 圖書館實務의 技術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分明히 이 命題들은 圖書館이 文化와 人間에 대해 自律性を 갖도록(어떤 意味에서 文化와 人間을 支配할 수 있는)해 주며 圖書館學은 圖書館의 方法論的 體系일 수 있음을 確認하고 있다.

本 研究에서 試圖된 圖書館學的 體系는 물론 이와같은 圖書館의 行爲(上記命題에 충실한)를 科學의 對象으로서 빈역하므로써 시작되었다. 本稿에서 圖書館(圖書館의 行爲의 抽象的 實體로서)은 人間의 探究의 行爲의 組織의 形成이라고 定義되었고, 이 定義를 實現키 위한 圖書館의 過程은 앞의 49p. 와 같이 圖示되었다. 圖書館學은 이 圖示된 圖書館 過程을 記述, 說明, 豫言하는 科學이다. 圖書館學은 圖書館의 思想도 아니며 實務의 技術도 아니다. 즉 圖書館學은 圖書館을 支配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科學답게 圖書館의 過程을 說明하고자 한다.

이 過程을 概念化하여 다음과 같은 理論模型을 提案하게 되었다.

- 理論Ⅰ 1. 知的文化財의 情報化理論
 2. 知的文化財의 經驗化, 즉 情報處理 理論
 3. 圖書館人的 媒介行動理論
- 理論Ⅱ 4. 圖書館 體制理論
- 理論Ⅲ 5. 學校의 教育活動의 指導理論
 6. 地域社會 住民의 興味擴張理論
 7. 社會改善의 資源理論
-
- 理論Ⅳ 8. 文化繼承의 原理의 接近理論

이 理論模型은 매우 挑戰的이긴 하지만 諸 先進學者들의 體系에 대한 논

쟁을 다시 검토해 본으로써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즉 圖書館學이 圖書館 技術의 綜合으로부터 獨自의 圖書館 概念의 形成을 試圖하는 흔적이 뚜렷했었다(예컨대 “情報”의 形成과 傳達) 그리고 先進 大學들의 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을 분석해 본 結果에서도 마찬가지로의 傾向을 發見할 수 있었다.

圖書館的 行爲는 文化創造의 獨自의 道具일 수 있는 充分한 資格을 갖춘 人間의 普遍的 行爲이며, 圖書館學은 이 行爲를 記述, 說明, 豫言하는 概念法則, 理論을 形成하는 科學(社會科學)이라는 것은 確實한 것 같다.

參 考 文 獻

- 金世娟. 圖書館과 社會.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1.
- . “圖書館의 成立과 韓國圖書館學의 未來像”, 國회도서관보 4권 7호, 1967. pp.15—19.
- 이흥주. “도서관학의 문제점 ; 학문으로서의 도서관학”, 도협월보 11권 7호 1970. pp.16—22.
- 任鍾淳. 圖書館學概論. 韓國圖書館協會, 1969.
- . “圖書館學의 定義에 대해서”, 延世大圖書館學會誌 2집, 1968. pp.78—84.
- 鄭駁謨. “도서관 명칭의 변천에 대하여”, 도서관학 2집, 1971. pp.63—78.
- . “圖書館學의 새로운 體系 : 文化暢達의 經驗的 方法論의 展開”, 중앙대논문집 14집, 1969. pp.65—90.
- . 文獻情報原論.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7.
- . “情報科學의 屬性과 文獻情學”, 圖書館學報 2, 1973. pp.129—175.
- 韓國圖書館協會編. 圖書館實務便覽.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6.
- 藤林忠. “圖書館學의 基礎問題”, 山口大學教育學部研究論叢 Vol.1, No.1, 1951.
- 笠伸平. “インフオツヨンとインテリジェンス”, 情報科學, Vol.1, No.1,
- 澁田義行. “近代圖書館の理念と圖書館員の專門性について”, 圖書館界 29卷 2號, 1977. pp.49—56.
- 椎名六郎. 新 圖書館學概論. 東京, 學藝圖書, 昭和 48年(1973).
- 草野正名. 圖書館學原論. 東京, 內田老學園新社, 昭和 42年(1967).
- Boll, John J. “A basis for library education”, *The Library Quarterly* XLII.

1972. pp.195—211.
- Butler, Pierce.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1933. (劉永炫譯, 圖書館學概論. 서울, 연세대학교, 1961.)
- Carnovsky, Leon. "The foreign student in the American library school I", *Library Quarterly* vol.43, No.2, 1973. pp.103—124.
- Dulles, Allen Welsh. *The Craft of intelligence*.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65.
- Gates, Jean Key. *Introduction to Librarianship*. New York McGraw-Hill, 1968.
- Hessel, Alfred. *History of Libraries*. Metuchen Scarecrow. 1955 (李春熙譯, 西洋圖書館史.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 Kenneth, E. Boulding. "The Economics of knowledge and the Knowledge of Economic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6, (鄭駉謨譯, "知識經濟學과 線濟學의 知識", 國회도서관보 7권 6호, 1970. pp.58—68.)
- Mittal, R.L. *Library Administration theory and practice*. Metropolitan Book, 1973.
- Sabor, Josefa E. *Methods of teaching Librarianship*, 1969. (服部金太郎, 岡田靖共譯, 圖書館學教授法. 日本圖書館協會, 1974).
- Shera, Jesse H. *The Foundation for Librarianship*. Becker and Hayes, 1972.
- Strike Logic of Learning by Discover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4, No.3, 1975.
- Voigt, Melvin J. *Advances in Librarianship*. Seminar, 1970.
- Wilson, John J., Processes of Scientific Inquiry: A Model for teaching and Learning. *Science of Education* vol.58, No.1, 1974.
- 그의 國內外大學 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

本 研究를 爲해 教授研究費를 지급하여 주신 啓明大學校 當局에 감사를 드립니다.

A Study on the Scientific Character and Systematization of Library Science

Kim, Chung Soh*

[Abstract]

This thesis is to discuss and prove the identity of the acts of the library and the character of the library which regards these as its objects. And this study is analyzed in view of perceptual problems and scientific problems and scientific problems in order to make clear the character of the acts of the library. In these processes, some basic propositions are extracted.

First, culture can be found in arranged order.

Second, human beings can create culture by the acquisition of accumulated culture.

Third, an individual is purposely related with culture.

Fourth, culture is antonomous to mankind.

And in this thesis, library science is defined as the systematic formation of mankind's pursuing acts, and to identify this definition, some theoretical models of library science have been offered as follows:

- Model I
1. Theory of making cultural assets informative.
 2. Theory of making cultural assets empirical; that of information treatment.
 3. Theory of medial acts of librarians.
- Model II
4. Theory of organic systems of libraries.
- Model III
5. Theory of guiding school activities.
 6. Theory of extending the inhabitants' interests of

*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Keimyung Vocational College.

communities.

7. Theory of a kind of resources in social improvement.
ModelⅣ 8. Theory of a means of principal approach to the
succession of culture.

In conclusion, this study is to prove that the acts of libraries are the universal ones of those human beings that are qualified to be the unique means to the creation of culture and, library science is a science that shapes concepts and rules to describe, to make explanation and to foretell these acts.